

A large pile of waste, including plastic bottles, paper, and other debris,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In the foreground, a blue truck is parked next to a large red metal container. The scene is set in an industrial or recycling facility.

삼성 KPMG

Business Focus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

March 2022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

T: +82 2 2112 0904

E: dohwipark@kr.kpmg.com

전혜린

선임연구원

T: +82 2 2112 7976

E: haerinjeon@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I. 폐기물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II.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 변천사	6
III.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에 주목하는 기업	13
IV. 결론 및 시사점	26
V. Appendix	29

폐기물 정의 및 산업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폐기물은 발생원, 발생량, 유해성, 발생특성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폐기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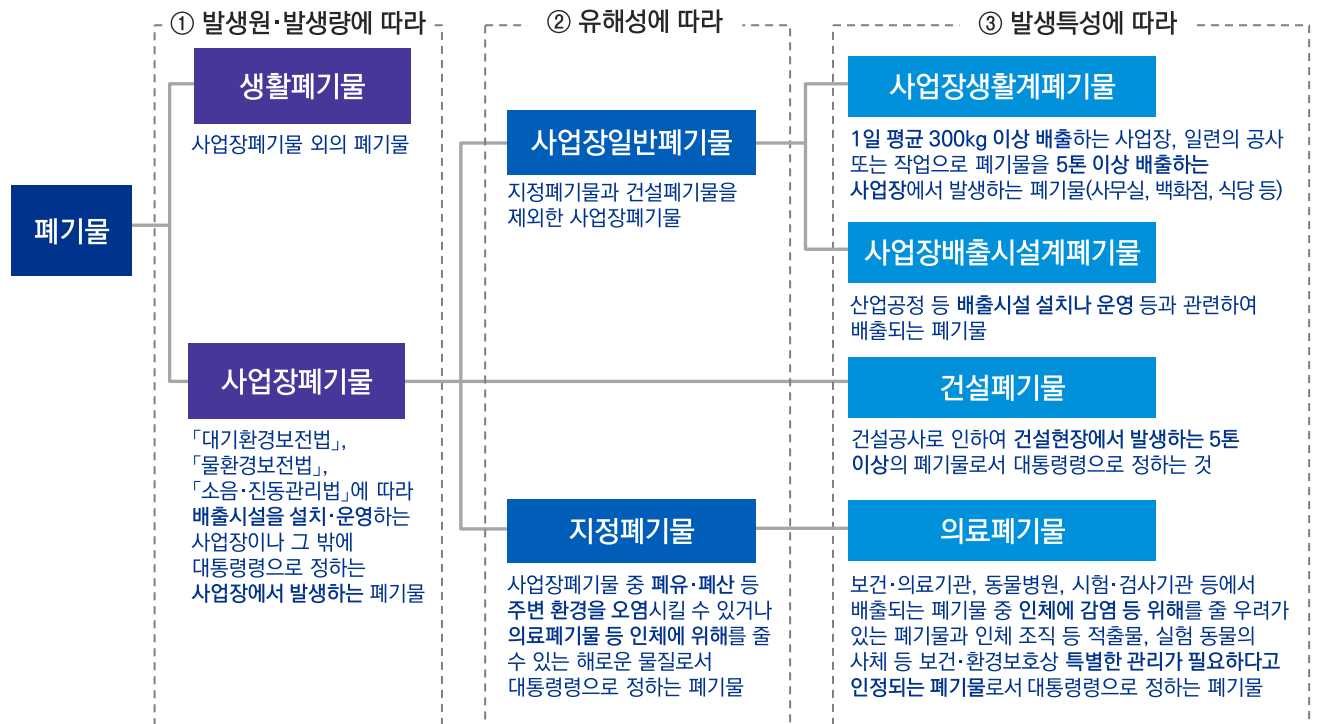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예를 들어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 「폐기물관리법」 제2조



Source: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폐기물 산업 분류



Source: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 폐기물 산업의 개요 및 특징

폐기물 처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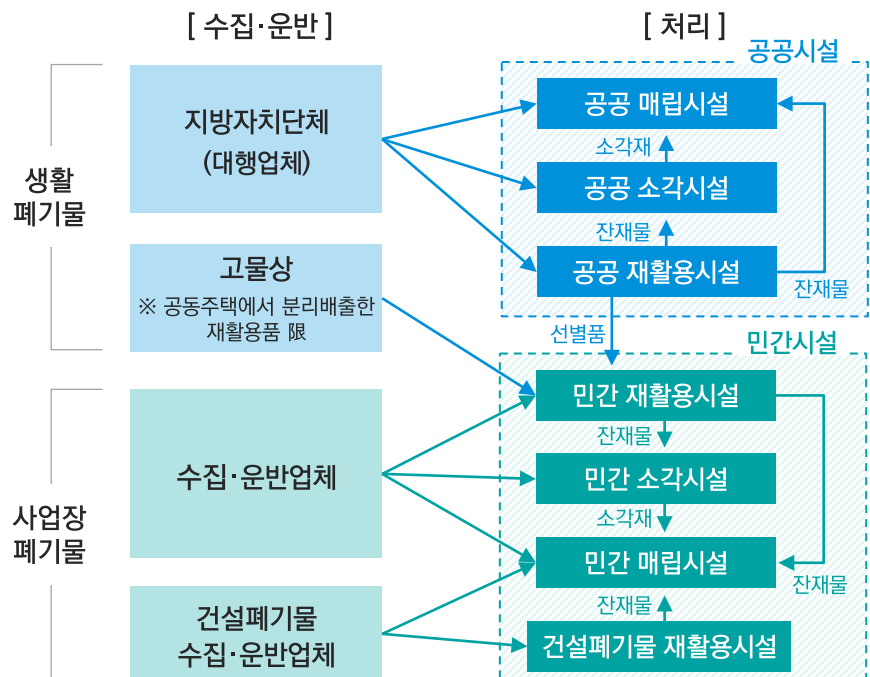
폐기물 처리업은 영업 내용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분업 및 재활용업으로 분류되며 처분은 크게 소각, 매립 등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하여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며 보통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 후 남은 잔재물 및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함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 및 영업 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처분업	중간처분업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등 중간처분하는 영업
	최종처분업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종합처분업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 재활용업	중간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최종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종합재활용업	중간재활용과 최종재활용을 함께 하는 영업

Source: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폐기물 처리 주체



Source: 환경부, 감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폐기물 산업의 특징

인간이 의식주 생활을 하는 이상 폐기물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 산업은 경기 민감도가 낮음. 또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와 대규모 설비 투자, 부지 확보 등을 필요로 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고, 자원순환 관리업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환경산업임

폐기물 산업의 주요 특징

1

낮은 경기 민감도

- 인간이 의식주 생활을 이어가는 이상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특히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원소비가 확대되고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가짐
- 이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 산업은 경기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음

2

높은 시장 진입장벽

- 폐기물 산업은 대표적인 허가 산업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함
- 특히 폐기물 최종 처분 단계인 매립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사업 허가 절차 외 지자체 승인 및 지역 주민 민원의 이슈가 연관되어 있어 부지 확보 조차 어려움
- 또한 소각시설, 기계·화학적 처분시설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초기 시설 구축비가 막대하게 요구되는 산업임. 아울러 환경 기준치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음

3

정부의 규제 산업

- 정부는 국가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제정함
- 폐기물 산업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출과 처리, 사업자 지도·감독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규제 산업임

4

공공재적 환경산업

- 통계청의 환경산업분류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서비스업은 자원순환 관리업에 속함. 즉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산업 중 하나임
- 폐기물 산업은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결정적으로 국가 및 지역환경 개선과 연관되어 공공재 성격이 강함

Source: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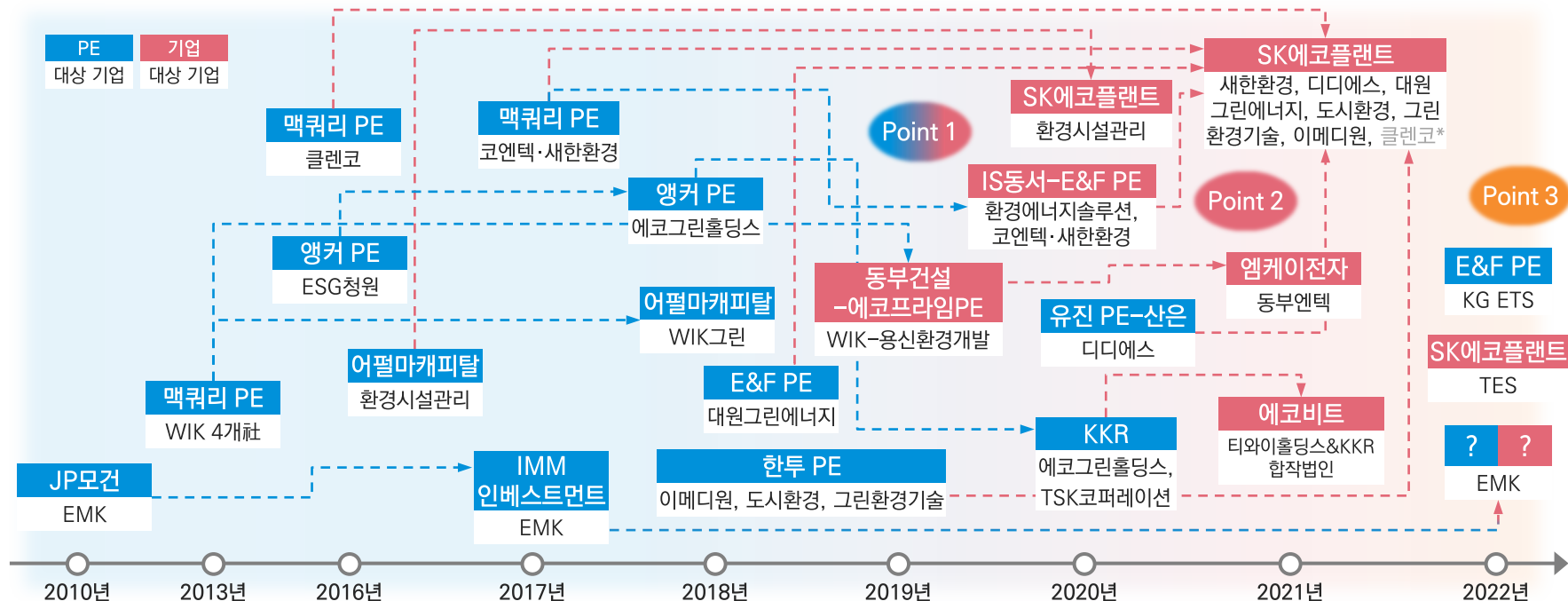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폐기물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II.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 변천사	6
III.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에 주목하는 기업	13
IV. 결론 및 시사점	26
V. Appendix	29

한 눈에 보는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인수·합병)는 기업가치 급등을 선제적으로 전망한 PE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 한편 PE가 운용하던 폐기물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한 2019년 이후부터는 국내 일반 기업까지 인수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국내 폐기물 산업의 주요 M&A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해당 기간 주요 M&A만을 정리함

Note2: SK에코플랜트의 클렌코 인수는 보류 중(2022.03.02 기준)

Point 1. 컨소시엄 활용한 기업의 참여 시작

국내 기업은 먼저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함. 폐기물 M&A 시장 진입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로 공동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한 것. 대표적으로 2019년 맥쿼리 PE가 운용하던 WIK 4개社와 용신환경개발을 인수한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컨소시엄이 있음

- 대상 기업: WIK중부, WIK환경, WIK그린, WIK경기, 용신환경개발
- 거래 내용: PE 맥쿼리 PE ▶ PE 어펠마캐피탈, 기업&PE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PE 맥쿼리 PE	PE 기업&PE 어펠마캐피탈,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투자 시기 2013년	인수 시기 2018년 ~ 2019년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쿼리 PE는 폐기물 처리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2013년 ①WIK중부(舊대길산업), ②WIK환경(舊대길환경) 인수에 약 500억 원 투자: 국내 PE의 폐기물 산업 투자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WIK중부를 물적 분할하여 ③WIK그린(舊대길그린), ④WIK경기 설립 • 맥쿼리 PE는 2017년 코엔텍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코엔텍 자회사 ⑤용신환경개발 경영권도 확보 • 2018년부터 맥쿼리 PE는 상기 5개사를 패키지로 내세우며 매물 어필 	<p>▶</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WIK그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어펠마캐피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펠마캐피탈(舊SC PE)은 2016년 환경시설관리(舊EMC홀딩스)를 인수하여 수처리 포트폴리오를 확보. 소각 서비스를 추가하여 종합환경관리 밸류체인을 완성하고자 WIK그린 인수(750억 원) • 2019년 3월 남은 4개사를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컨소시엄이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건설은 WIK-용신환경개발 4개사를 인수한 에코프라임 PE에 간접 투자 형태로 건설폐기물 사업 진출(820억 원) - 동부건설의 전국 각지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하고 있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건설폐기물 사업을 인수하여 건설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다각화를 이루려는 목적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Point 1. 컨소시엄 활용한 기업의 참여 시작(계속)

2020년 IS동서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본업인 건설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E&F PE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한 배당수익 확보를 위해 IS동서-E&F PE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맥쿼리 PE의 코엔텍 및 새한환경을 인수함

- 대상 기업: 코엔텍, 새한환경
- 거래 내용: PE 맥쿼리 PE ▶ 기업&PE IS동서-E&F PE

PE 맥쿼리 PE	기업&PE IS동서-E&F PE
투자 시기 2017년	인수 시기 2020년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쿼리 PE는 2017년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배당수익 확대를 위해 영남권 최대 환경기업 코엔텍과 소각 전문기업 새한환경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성그룹으로부터 코엔텍 경영권 지분 33.63% 먼저 795억 원에 인수. 이후 2차례 공개매수 통해 지분율 59.29% 확보 - 새한환경의 경우 지분 100% 인수(186억 원) • 약 2년간 공격적인 결산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2020년 빠르게 매물 어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 많은 울산에서 폐기물 처리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코엔텍은 2019년 매립장 증설을 허가 받음. 최대의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매각 시기 선정한 것으로 추정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9월 IS동서-E&F PE의 패키지 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동서는 2019년부터 렌탈업 등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고 건설폐기물 전문 인선이엔티를 인수하는 등 폐기물 사업에 주목 - IS동서는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강점을 가진 E&F 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0년 3월 환경에너지솔루션(舊코오롱환경에너지)을 인수. 이후 코엔텍·새한환경 인수(총 약 5,000억 원) (코엔텍의 경우 TV/EBIDTA 동종업계(9.21x) 대비 높은 14.36x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됨) - IS동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환경 사업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하여 소각부터 매각까지 포괄하는 영남권 폐기물 처리 기업 인수를 추진한 것. 본업인 건설업과의 시너지를 기대 - E&F PE는 안정적 배당 수익 확보를 위해 본 인수 참여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Point 2. 기업의 단독 인수 본격화

폐기물 처리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대두되고 가치가 점점 높아지자 2020년 이후에는 국내 일반 기업이 사업 영역 다각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이익 창출 등을 기대하며 공동 투자 없이 단독으로 폐기물 M&A를 단행하기 시작함. SK에코플랜트(舊SK건설)가 선두 주자로 환경시설관리(舊EMC홀딩스)를 인수하며 환경 사업에 진출함

- 대상 기업: ① 환경시설관리(舊EMC홀딩스) / ② 동부엔텍
- 거래 내용: ① PE 어펠마캐피탈 ▶ 기업 SK에코플랜트 / ② 기업&PE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 기업 엠케이전자

PE	어펠마캐피탈
투자 시기	2016년 ~ 2017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펠마캐피탈은 2016년 코오롱위터앤에너지 인수 후 소각·매립 분야 5개 기업 추가 인수하며 볼트온 전략*으로 종합 환경 플랫폼 기업 舊EMC홀딩스 완성(투자원금 약 450억 원) - '17년 충청환경에너지, 경기환경에너지, 와이에스텍, '18년 서남환경에너지, '19년 경인환경에너지(舊WIK그린) 인수

기업&PE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투자 시기	2019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건설-에코프라임 PE 컨소시엄은 맥쿼리 PE로부터 WIK-용신환경개발 4개사 인수(820억 원) - 이후 동부건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각·하수처리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동부엔텍 설립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볼트온(Bolt-on) 전략이란 PE가 하나의 기업을 사들인 뒤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유사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전략을 말함

기업	SK에코플랜트
인수 시기	2020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SK에코플랜트의 EMC홀딩스 인수(現환경시설관리로 상호 변경, - 3R(Reduce: 소각·매립, Reuse: 수처리, Recycle: Wasted Material) 중심의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을 목표로,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인수 단행(1조 500억 원) - EMC홀딩스와 자회사 환경시설관리·환경관리를 합병하여 상호 변경

기업	엠케이전자
인수 시기	2021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월 반도체 소재 부품기업 엠케이전자가 동부엔텍 인수 - 친환경 사업 다각화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자 인수(454억 원) - 동부엔텍의 소각로 운영 노하우와 엠케이전자의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환 경제 및 친환경 사업 기틀을 마련할 전략

Point 2. 기업의 단독 인수 본격화(계속)

환경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한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인수한 환경시설관리를 기반으로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 등 폐기물 처리업을 추가 인수하며 볼트온 전략 구사함. 폐기물 처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목하며 포트폴리오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대상 기업: 클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이메디원, 도시환경, 그린환경기술, 디디에스
- 거래 내용: PE 맥쿼리 PE, E&F PE, 유진 PE, 한투 PE 외 ▶ 기업 SK에코플랜트

PE 맥쿼리 PE, E&F PE, 유진 PE, 한투 PE 외	
투자 시기	2016년 ~ 2020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맥쿼리 PE는 클렌코(舊진주산업) 구주 60%를 650억 원에 인수 후 3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매입(약 1,000억 원 투입) • E&F PE는 2018년 대원그린에너지에 투자(200억 원) 하였고, 2020년에는 IS동서와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새한환경 인수(약 900억 원) • 한투 PE는 환경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그린펀드 운용사로 선정. 2018년 이메디원, 2019년 도시환경, 그린환경기술에 약 1,115억 원 투자 • 2020년 유진 PE-산업은행(PE실) 컨소시엄은 의료폐기물 시장의 성장성과 처리단가 상승에 주목하여 의료폐기물 기업 디디에스 지분 70%를 약 80억 원에 인수

기업&PE SK에코플랜트	
인수 시기	2021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5월 사명 변경(舊SK건설)과 함께 에코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며 환경기업으로 전환 선언 • 2021년 6월부터 볼트온 전략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7개사를 추가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인수한 환경시설관리를 기반으로 볼트온 전략 구사 - 2021년 6월 새한환경(975억 원), 대원그린에너지(505억 원), 디디에스(546억 원) 인수(새한환경, 대원그린에너지는 패키지 딜) (※동기간 공시한 클렌코(2,151억 원) 인수는 보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7월 총 2,100억 원에 도시환경, 그린환경기술, 이메디원 인수 • 폐기물 사업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변동에도 무관하게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업에 주목.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까지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 중소기업체 위주였던 폐기물 처리업의 대형사 중심 재편 구조를 마련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클렌코의 경우 해당 지자체 청주시와의 법적 공방 리스크가 존재하여 SK에코플랜트가 인수계약만 공시하고 인수 마무리는 지속 보류 상태(2022.03.02 기준)

Point 3. 미래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

2020년부터는 기업이 PE와 동등한 하나의 경쟁자로 폐기물 처리업 M&A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합병을 통한 신생 기업까지 출범하여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더 이상 미래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으로 PE를 단정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함

1

또 하나의 경쟁자, 신흥 환경기업 출범

- 2021년 10월 티와이홀딩스와 KKR의 합병법인인 '에코비트' 출범
 - 티와이홀딩스 자회사 TSK코퍼레이션과 KKR이 운용하던 에코그린홀딩스의 합병
 - 티와이홀딩스와 KKR이 에코비트의 지분 각각 50%씩 보유
- 에코비트는 종합 환경기업을 목표로 폐기물 M&A 시장 내 신흥 전략적 투자자로 부상
 - 기존 TSK코퍼레이션의 매립·수처리 사업과 에코그린홀딩스의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역량을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
 -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기업가치 증진을 위해 호남권 소각 기업인 명성환경을 인수하는 등 볼트온 전략 추진

2

M&A 시장 내 PE와 기업의 경쟁 본격화

① 기업의 참여 본격화

-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2월 글로벌 E-Waste (전기·전자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TES)社를 추가 인수하며 종합 환경기업으로서 지위를 굳히고 있음
- 2022년 1월 KG ETS 매각의 예비입찰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에코비트 등 일반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적격예비 후보까지 선정됨

VS

② PE의 관심도 여전히 지속

- 일반 기업 외 PE도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상기 KG ETS 인수전에는 E&F PE, 유진 PE, SKS PE-VL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등 다수의 PE 또한 참여했으며, 2022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는 E&F PE가 선정됨

3

미래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

- 폐기물 관련 매물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M&A 시장 내 핫 딜로 주목받고 있음
- 2022년 또 하나의 주요 매물로 EMK가 등장
 - EMK는 JP모건이 2010년 설립한 기업으로 2017년 IMM인베스트먼트가 약 3,900억 원에 인수하며 볼트온 전략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
 - 최근 ESG 경영 부상과 폐기물 산업의 성장세 등에 힘입어 EMK의 시장 내 거래가는 1조 원 수준까지 전망됨
- EMK 주요 인수 후보로는 SK에코플랜트, 에코비트, E&F PE, 유진 PE 등 PE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유력하게 거론되며 미래 주인을 단정할 수 없는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음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Page
I. 폐기물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II.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 변천사	6
III.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에 주목하는 기업	13
IV. 결론 및 시사점	26
V. Appendix	29

폐기물 처리업에 주목하는 기업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던 PE에서부터 일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음. 국내 일반 기업은 ①폐기물 산업의 성장성, ②처리 기업의 희소성, ③수익성 개선 수단, ④폐기물 에너지화의 기반, ⑤ESG 경영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폐기물 처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PE의 폐기물 처리업 선제적 투자 배경

[산업 배경]

- 2017년 중국이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수입폐기물 규제 지속 강화... 2021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실정
→ 지자체 처리 용량 초과로 민간업체 수요와 처리 단가는 지속 상승

1 시장 내 수요가 기존 기업에게 집중된다는 점

- 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가 기존 폐기물 처리 기업의 매출 상승을 견인한다는 구조에 주목하여 선제적 투자 단행

2 볼트온(Bolt-on)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효과가 크다는 점

- 폐기물 산업은 변동비 부담이 낮아 사업 규모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증대
- 이에 따라 영세한 유사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볼트온 전략을 통해 폐기물 사업을 수직계열화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지역 독과점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남
- 효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재매각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및 수익 극대화 목적

3 규모가 커진 기업은 추가 인수·투자금 부담이 적다는 점

- 이미 볼트온으로 몸집이 커진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인수나 기타 투자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여전히 PE의 관심이 지속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기업의 폐기물 처리업 매물 관심 대두

산업 특성에 주목

① 폐기물 산업의 성장성

- 경제·산업 발전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
- 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업 호황에 주목

②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

- 폐기물 소각·매립 등 처리 역량은 포화 상태이나 공공·민간 처리시설 추가 공급은 미지수
-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관련 M&A에 관심 확대

기업 경영 개선에 주목

③ 수익성 개선 수단

- 공급 부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은 기업 매출을 견인
- 폐기물 처리업은 재고관리가 필요 없고 현금 흐름 우수하여 매수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

④ 폐기물 에너지화의 기반

- 폐기물 처리시설 한계는 궁극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유도
- 폐기물 에너지화까지 총괄하는 '종합 환경기업'이 되기 위한 기초 발판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고려

⑤ ESG 경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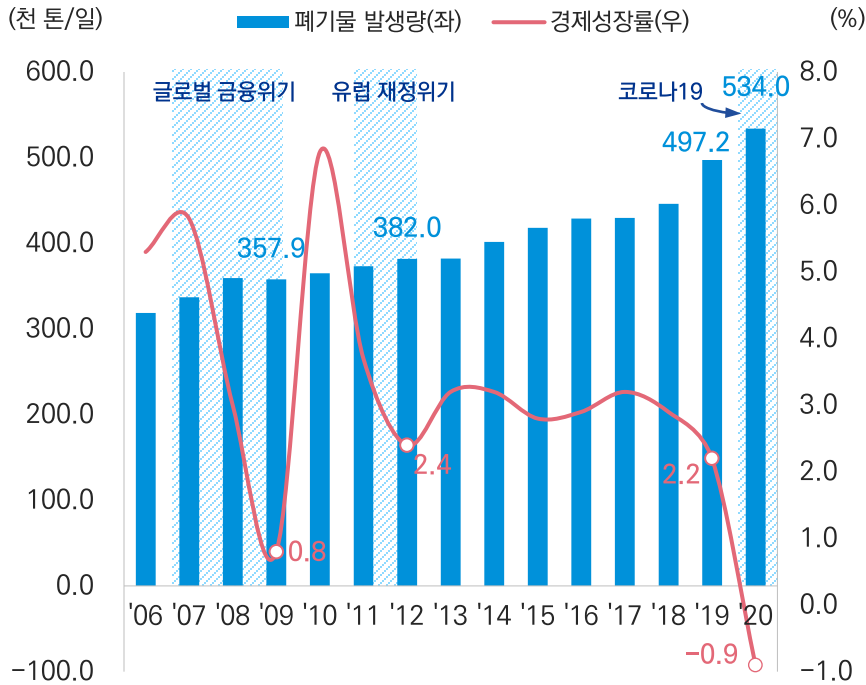
- 폐기물 산업은 대표적인 환경 산업으로 분류
- K-ESG 가이드라인 내 환경경영 및 폐기물 재활용이 포함되며 최근 화두인 ESG 경영 지표 개선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에 눈길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Reason 1. 폐기물 산업의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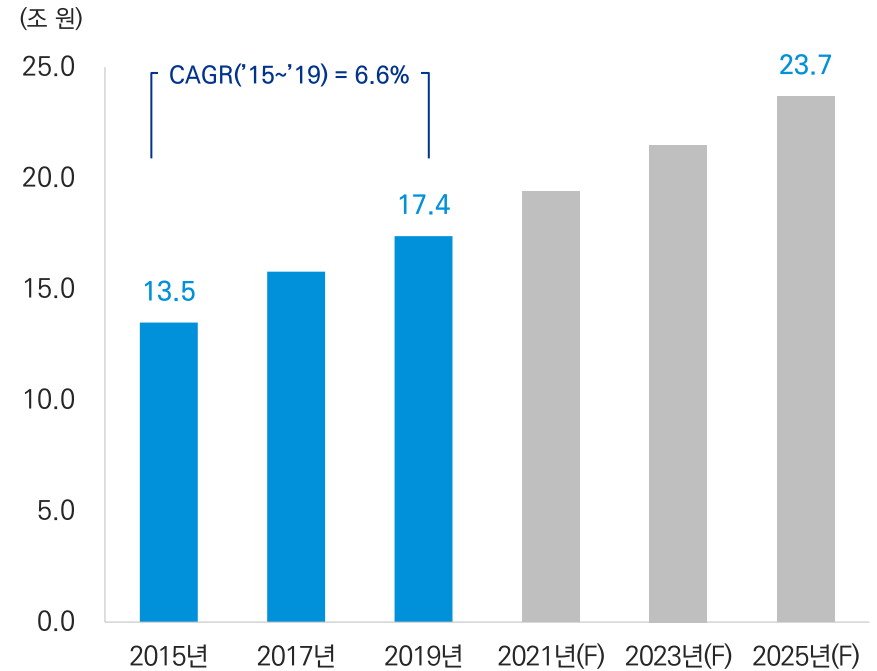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경기침체나 국내 경제성장률 등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수요가 덩달아 확대되면서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이 동반 성장함. 폐기물 처리업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 2025년 23.7조 원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폐기물 발생량 추이



Source: 환경부,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경제성장률은 실질GDP(2015년 기준)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폐기물 처리업 시장규모



Source: 신영증권, 환경부, 국제통화기금,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Reason 1. 폐기물 산업의 성장세(계속)

국민 소득 수준 증가와 비대면 산업 발전이 폐기물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및 주택 개발 활성화가 더해져 산업은 호황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한편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처리 역량의 한계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자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에게 긍정적 시장 환경이 마련되면서 기업의 이목을 견인

폐기물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4대 요소

① 국민 소득 증가

- 인간이 의식주 생활을 이어가는 이상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함
- 특히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국내에서도 산업 발전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 증가할 것
* 2020년 소득 수준별 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고소득 국가 1.60kg, 중상위 소득 국가 0.91kg, 저소득 국가 0.41kg

③ 의료기기 사용 및 서비스의 수요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보호용 장비, 진단 키트 등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늘어나며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
- 또한 고령화 시대의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힘입어 의료폐기물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지정폐기물 발생량:
2014년 13,172톤/일 → 2019년 15,556톤/일

② 비대면 산업·소비 확대

- ICT 발달과 함께 이커머스, 딜리버리 등 비대면 산업 성장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었고 일회용 컵·용기, 택배상자, 포장 비닐 등 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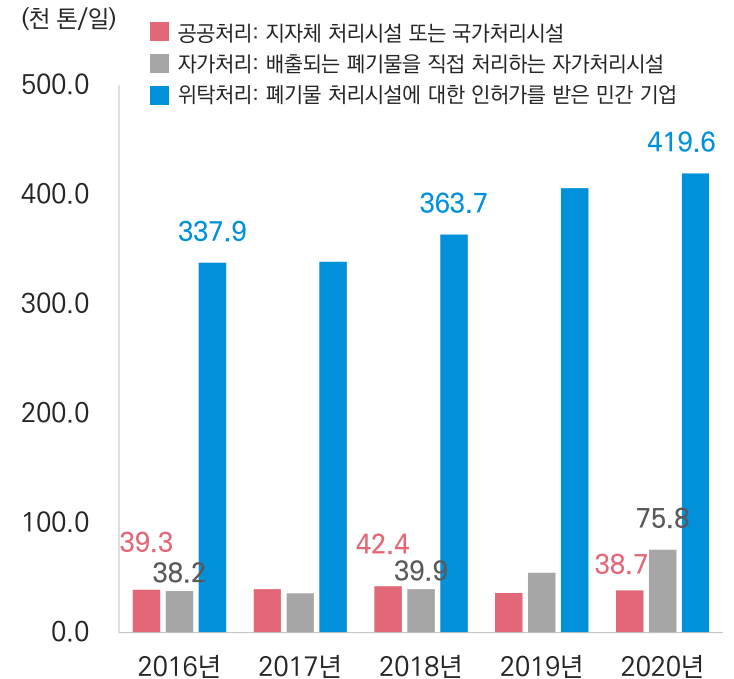
④ 주택 개발 활성화

- 주택 개발이나 인테리어 수요 확대로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은 꾸준히 늘어남
- 2025년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 정부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불가피하게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Source: World Bank, 환경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소득 수준별 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은 World Bank의 'More Growth, Less Garbage(2021.07)'에 따른 데이터이며, 소득 수준은 1인당 연간 소득 기준으로 고소득 \$12,476 이상, 중상위 소득 \$4,036이상 \$12,475미만, 저소득 \$1,025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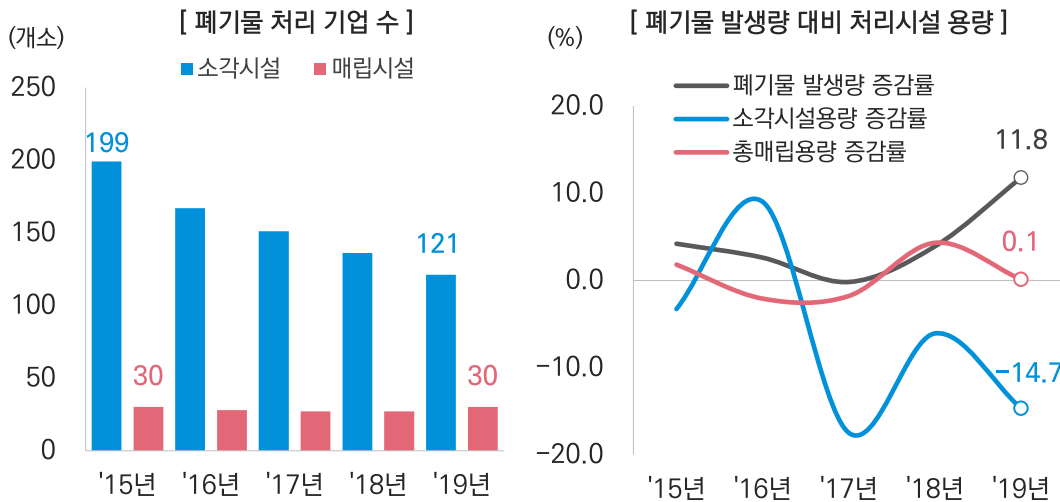


Source: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Reason 2. 희소성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가 처리시설(자가소각·매립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공공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정부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확충 계획은 입지후보지 공모부터 무산되는 등 처리시설 공급 방안이 미지수

폐기물 자가 처리업체 및 처리시설 용량 현황



- 국내 생활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처리시설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임
- 아울러 폐기물 소각시설용량 및 잔여매립가능량도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부족한 실정을 나타냄에 따라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음

Source: 통계청,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처리 기업 수와 처리시설 용량은 자가 처리시설-생활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한정된 통계자료를 활용함

Note2: 폐기물 발생량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한정된 값이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 용량의 증감률은 전년 대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주요 이슈

①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

- 1992년 조성된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약 30년 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
- 하지만 인천시는 2025년 이후 더이상 수도권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함
 - 인천시는 소각재를 묻는 인천예코랜드를 2025년까지 조성하고 인천시 폐기물만 처리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
- 정부는 인천시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공모하였으나 2차 공모까지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용량의 한계가 빠르게 압박하고 있음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 공급 부족에 따라 정부가 불법·재난 폐기물의 신속하고 친환경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이익금 배분 등 혜택을 앞세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에 나섬
- 2차례 공모하였으나 2022년 1월 17일 2차 공모도 무산됨

Source: 환경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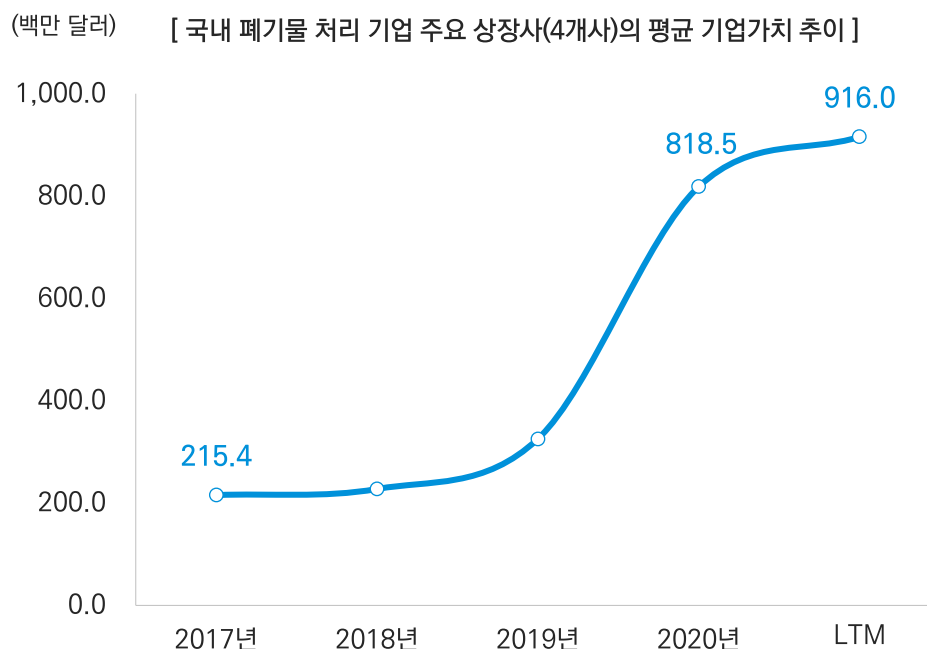
Reason 2. 희소성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계속)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은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을 부각시키며 기업가치(EV)를 견인 중임. 코엔텍, 와이엔텍 등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년 279.9% 상승함. 이와 같은 기업가치 상승으로 폐기물 처리업 M&A에 이목이 집중됨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기업가치(EV)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20년	증감률
코엔텍	226.1	398.4	76.2%
와이엔텍	128.3	298.9	133.0%
인선이엔티	350.4	545.4	55.7%
KG ETS	156.9	2,031.3	1,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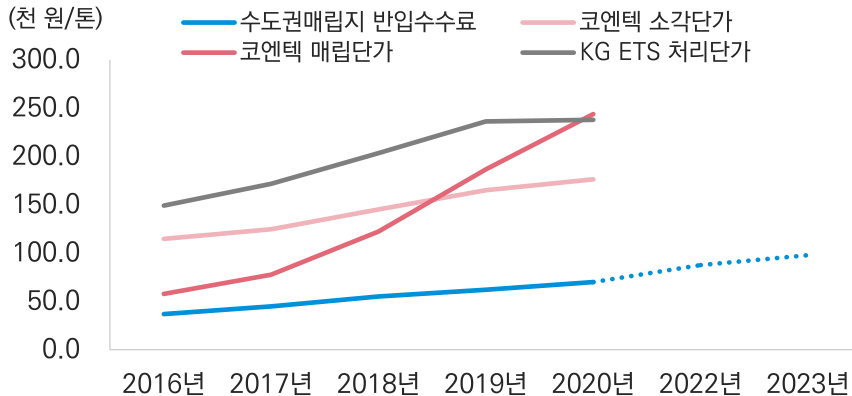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2022.01.19 기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20년 값이며, LTM(Last Twelve Months)은 2021년 9월 30일이 기준

Reason 3. 수익성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폐기물 처리단가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시설 고도화를 위한 투자 비용 상승 등이 있음. 특히 단가 협상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공급자가 폐기물 배출자보다 우위에 있게 되며 단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임

폐기물 처리단가 추이



- [민간시설 처리단가] 국내 폐기물 처리 기업 주요 상장사 중 코엔텍, KG ETS가 처리단가를 공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단가 연평균 증감률은 코엔텍 소각단가 11.3%, 매립단가 43.3%, KG ETS 처리단가 12.4%임
- [공공시설 처리단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추이로 간접적으로 확인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7.5%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 공시된 바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처리단가도 계속 높아짐

Sourc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각 사 공시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에 한정된 단가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 원인

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민간시설 폐기물 처리단가는 각 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나타남
- 최근 폐기물 처리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인허가 제한, 주민 반발 등으로 처리시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지자 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짐
- 처리업체와 배출업체 간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별로 처리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나나, 대부분 단가 협상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공급자가 배출자보다 우위에 있어 전반적으로 처리단가가 상승세를 보임

② 처리시설 고도화를 위한 투자 비용

- 최근 환경 산업이 부상하고 정부의 환경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해물질 필터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고도화 관련한 투자가 요구됨
- 이를 위한 비용은 처리단가 상승으로 직결됨

③ 공공 처리시설 사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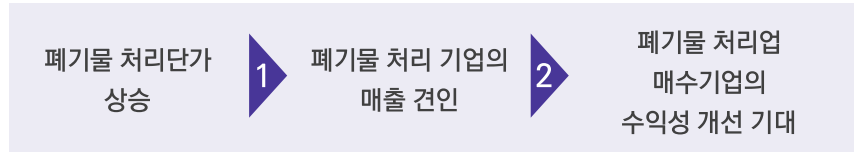
- 국내 매립지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매립지 조차 주변의 민원 및 환경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 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인상되고 있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Reason 3. 수익성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계속)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은 산업 특성상 폐기물 처리 기업의 매출 상승 및 영업이익 증가로 곧바로 이어짐.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는 폐기물 처리업 인수가 매수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M&A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

수익성 개선에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업



① 처리단가 상승은 폐기물 처리 기업의 매출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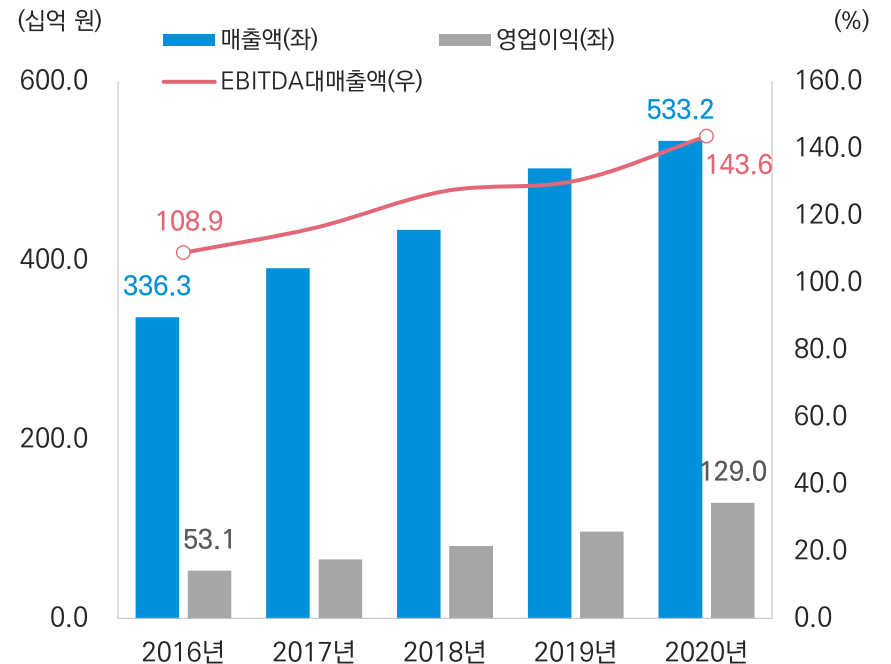
- 폐기물 처리업은 일반 제조업 등과 다르게 원재료 투입이 없음
- 이에 따라 소각단가나 매립단가,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처리단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 증가로 곧바로 이어짐

② 기업은 폐기물 처리업 인수 시 수익성 개선 기대

- 폐기물 처리업은 일반 제조업에 상응하는 재고관리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기 처리시설만 투자하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함
- 다만 폐기물 처리업을 직접 영위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존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을 시도
- 특히 건설업처럼 경기나 주주 상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매년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추가 구성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수익성 현황



Source: Kisline, 각 사 공시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1: 국내 폐기물 처리 기업 중 주요 상장사 코엔텍, 와이엔텍, 인선이엔티, KG ETS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코엔텍, 와이엔텍, KG ETS는 개별기준, 인선이엔티는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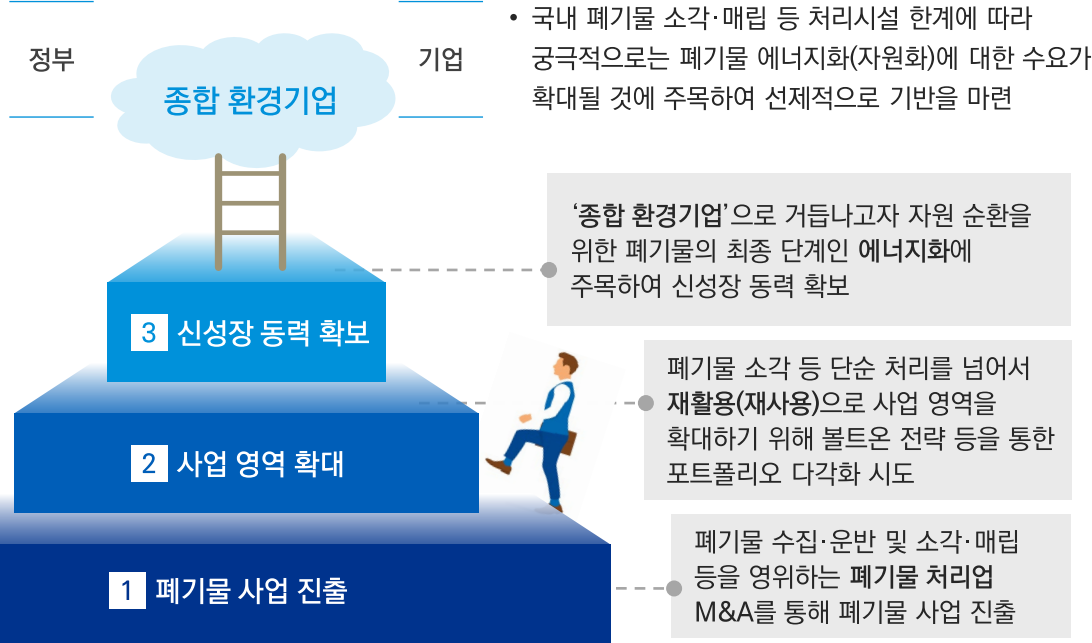
Note2: EBITDA대매출액 = (EBITDA/매출액)*100

Reason 4. 폐기물 에너지화를 목표로 한 기반 투자

정부는 ESG 시대에 환경경영을 강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한계에 대비한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폐기물 처리업을 발판으로 폐기물 사업에 진출하고 관련 기업의 단계적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선제적으로 종합 환경기업 밸류체인을 완성하고자 폐기물 사업에 주목함

국내 기업의 궁극적 목표 '종합 환경기업'

- ESG 시대에 발맞추어 기업의 환경경영과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확대를 강조
- 국토부는 2021년 4월 고등기술연구원, GS건설 등 공공기관·기업과 협력하여 도시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기술 개발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에 적극 동참
-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시행



[참고] 폐기물 에너지화란?

- ✓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함. 폐기물을 이용하여 자원을 만들어내는 폐기물 자원화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음
- ✓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열분해를 통한 오일화,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고체·액체·기체 연료 등을 생산하고 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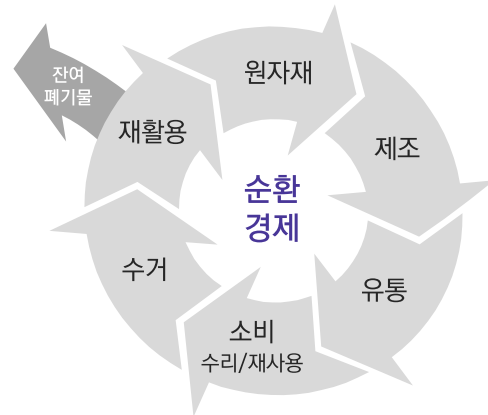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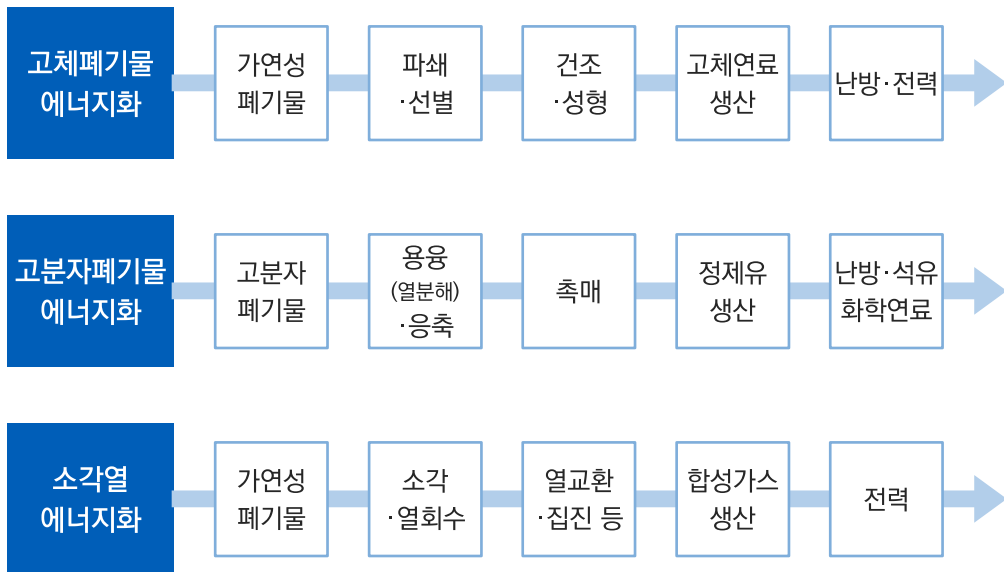
Source: 한국에너지공단,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Reason 4. 폐기물 에너지화를 목표로 한 기반 투자(계속)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성형고체연료, 폐유 정제유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님. 국내 기업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관련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원 창출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 에너지를 통한 순환경제 달성

[폐기물 종류별 에너지화 주요 프로세스]



- 순환경제는 원자재를 사용한 제조-유통-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말함
-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 및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분리 및 수거하여 자원으로 재사용하며, 남은 폐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임

Sourc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TRA,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Reason 5. ESG 경영 개선을 위한 요소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ESG 경영이 최대 화두가 된 것도 폐기물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특히 폐기물 처리업은 ESG의 핵심 요소 중 ‘E(Environmental)’와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어 ESG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ESG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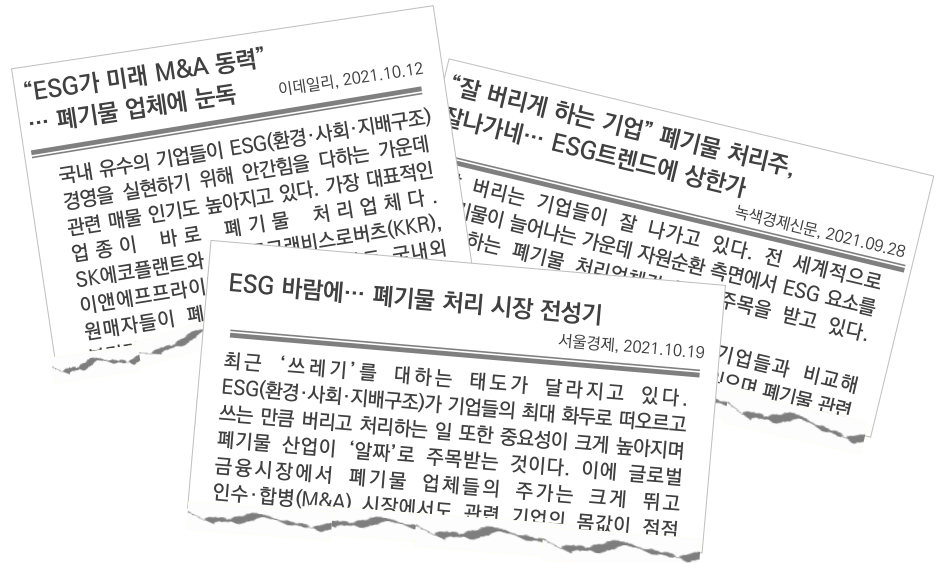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

- E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 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G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함
- ESG는 기업이 ‘지속경영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지표

[ESG의 구성 요소]

- E Environmental**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환경규제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등
- S Social**
 - 고객만족
 -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등
- G Governance**
 - 이사회 구성
 - 기업윤리
 - 공정경쟁 등

산업계 전반에서 ESG 경영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폐기물 처리업은 ESG의 3가지 핵심 요소 중 E(Environmental)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국내 기업의 관심 대두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Reason 5. ESG 경영 개선을 위한 요소(계속)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K-ESG 가이드라인에 환경경영 추진체계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기업은 ESG 평가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 환경투자 예산 등을 검토하며 폐기물 산업 M&A에 주목하게 됨

K-ESG 가이드라인 내 환경경영 추진체계 내용

영역/범주	환경/환경경영 목표
항목	환경경영 추진체계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환경성 향상과 환경 개선 등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 이해관계자의 환경영역 요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체계 갖추었는지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를 측정
점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1: 전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전담조직, 실무협의회, 경영회의, 내부점검체계 등) - 요건2: 전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전사 환경경영 기획, 점검, 성과관리 등 실행업무 담당) - 요건3: 과제 실행에 필요한 자원 투입하고 있는 경우(환경투자 예산, 역량강화 교육, 전문인력 등) - 요건4: 추진 현황을 점검/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있는 경우(IT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요건5: 과제 이행현황이 경영진 포함 관련 구성원의 KPI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선택 항목의 합산 값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하: 0점, 2개 충족: 25점, 3개 충족: 50점, 4개 충족: 75점, 5개 충족: 100점

-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 영역에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포함
 - 조직이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 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
- 환경경영 평가 지표는 기업이 폐기물 산업 M&A를 고려하는 트리거 역할을 함
 - 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처리 설비 투자 등 관련 예산을 계획하여 기업의 ESG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하나의 지름길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Reason 5. ESG 경영 개선을 위한 요소(계속)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 영역·폐기물 범주에는 폐기물 재활용 비율 관련 진단항목도 포함됨. 기업은 ESG 경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한 것

K-ESG 가이드라인 내 환경경영 추진체계 내용

영역/범주	환경/환경경영 목표											
항목	폐기물 재활용 비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는 것을 넘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 가공·생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거나, 2차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증가세에 있는지 측정											
점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현재 수준</th> <th>추세</th> </tr> </thead> <tbody> <tr> <td>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td> <td>지난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td> </tr> <tr> <td>(1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td> <td>(1단계) 감소 추세</td> </tr> <tr> <td>(2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td> <td>(2단계) 변동 없음</td> </tr> <tr> <td>(3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td> <td>(3단계) 증가 추세</td> </tr> </tbody> </table>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 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1/2 + (추세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1/2 - 1단계: 0점, 2단계: 50점, 3단계: 100점 	현재 수준	추세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지난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1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1단계) 감소 추세	(2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2단계) 변동 없음	(3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3단계) 증가 추세	
현재 수준	추세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지난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1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1단계) 감소 추세											
(2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2단계) 변동 없음											
(3단계)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3단계) 증가 추세											

-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 영역에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포함
- 기업은 ESG 경영의 현실화·구체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
 - PE를 통해 밸류업 및 대형화된 종합 폐기물 기업을 인수하거나 폐기물 소각·매립 등을 영위하는 중소 폐기물 기업을 순차적으로 인수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도
- 이를 기반으로 폐기물 재활용업까지 확대하여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 및 ESG 경영 내재화 달성 목표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Page
I. 폐기물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II.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 변천사	6
III.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에 주목하는 기업	13
IV. 결론 및 시사점	26
V. Appendix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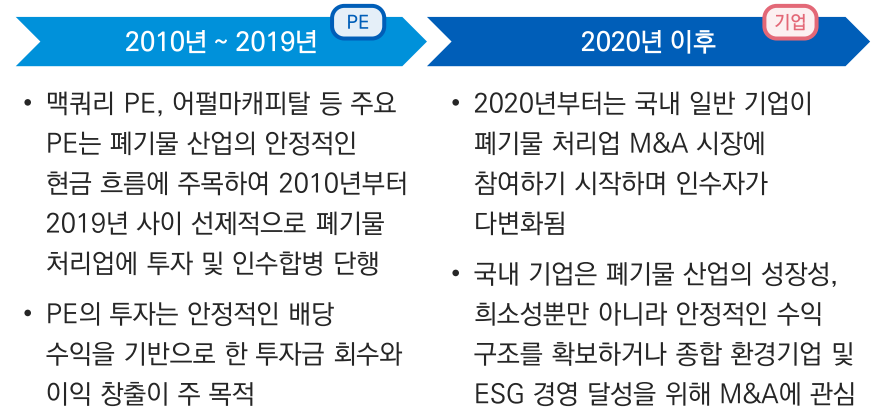
Key Takeaways

폐기물 산업의 현황 정리

폐기물 산업의 호황세

-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
 -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35만 7천 톤에서 2020년 53만 4천 톤으로 증가함. 약 10년 사이 하루 평균 17만 톤 이상이 늘어난 수준
- 폐기물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폐기물 산업은 경기 민감도가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나 국내 경제성장률과 무관하게 성장.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6.6% 성장률로 성장하여 2019년 17.4조 원의 시장규모를 이루었으며 2025년에는 23.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 높아져 호황 지속
 -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 정부의 인허가 규제, 지역 주민 반발 등의 문제로 자가 처리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처리 용량 한계에 임박한 공공 처리시설도 확충이 어려운 상황
 - 처리시설 공급 부족은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민간 처리 기업이 수혜를 입는 환경이 마련됨

폐기물 처리업 M&A 변천사



소수의 대형 기업 중심으로 집약되는 트렌드

- 활발한 M&A로 폐기물 처리 기업은 대형화·계열화
 - 폐기물 처리업은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M&A 시장 내 빅딜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PE 및 일반 기업이 볼트온 전략으로 유사기업을 추가 인수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영세 기업이 산재되어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 소수 기업 위주로 대형화 및 계열화되는 경향을 보임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Key Takeaways(계속)

기업의 대응 전략

ESG 경영의 핵심이 되는 폐기물 산업

- ESG가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
 - 2021년 빅딜 키워드 중 하나로 '친환경'이 꼽히는 등 ESG 경영이 화두가 됨에 따라 환경경영을 위한 환경산업 관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ESG 평가 개선을 위해 폐기물 산업에 주목해야 할 시기
 - 2021년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 내 환경경영과 폐기물이 포함
 - 대표적인 환경산업인 폐기물 산업을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면 ESG 평가 시 환경경영 (전담조직 운영, 예산투자 등), 폐기물 재활용 등의 진단 항목에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폐기물 처리업의 M&A를 검토할 시기

- ESG 시대에 활발해진 폐기물 처리업 M&A
 - ESG 경영이 필수가 되자 국내 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관심
 - M&A를 통해 대형화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기업이 첨단 설비 투자 및 시설 확보를 이룬다면 국내 폐기물 산업은 결국 소수의 대형 기업 중심으로 집약되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폐기물 처리업 통폐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이미 BIG3 기업이 시장 점유율 52% (Waste Management Inc. 26%, Republic Services 19%, Waste Connections 7%)
-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M&A를 검토할 필요
 - 폐기물 산업은 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적인 신규 사업 착수보다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 M&A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
 - 나아가 볼드온 전략으로 유사기업을 인수하고 인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

재활용·에너지화를 향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수립

- 종합 환경 전문기업을 목표로 M&A 전략 수립
 - 국내 기업은 종합 환경 전문기업을 목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폐기물 처리업 M&A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추세
 - 단계적인 환경산업 포트폴리오는 IPO(기업공개) 등을 위한 기업가치 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나아가도록 교두보를 마련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관건
 -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급 부족 가운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등 외부 규제까지 더해지며 정부는 폐기물의 자원화·재활용 비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결국은 소각·매립부터 재활용, 에너지화까지 다각화된 사업영역을 선점하는 기업이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

Source: Statista,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 시장 점유율은 Statista(2020)가 2019년 기준으로 발표한 데이터

Contents

	Page
I. 폐기물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II.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M&A 변천사	6
III. ESG 시대, 폐기물 처리에 주목하는 기업	13
IV. 결론 및 시사점	26
V. Appendix	29

종합 환경기업의 포트폴리오 사례

주요 기업의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방향

- 최근 폐기물 처리 산업에서의 기업들은 공격적인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
-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방향은 크게 ① 밸류체인별 확장, ② 지역별 확장, ③ 주요 사업별 확장으로 나눌 수 있음

- 과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폐기물 처리업은 최근 M&A를 통해 사업 규모가 전국구로 확장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업체를 인수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역별 확장

밸류체인별 확장



주요 사업별 확장



- 폐기물 처리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 중
- 아울러 최근 사업의 방향을 재활용, 에너지화까지 확장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넘어 종합 환경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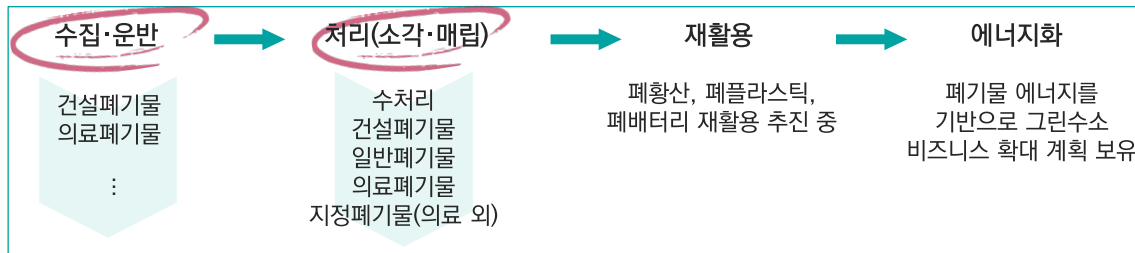
- 과거 일반폐기물 혹은 의료폐기물 등 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해오던 중소형 폐기물 업체들이 대거 인수되면서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

종합 환경기업의 포트폴리오 사례(계속)

주요 기업의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동향

① SK에코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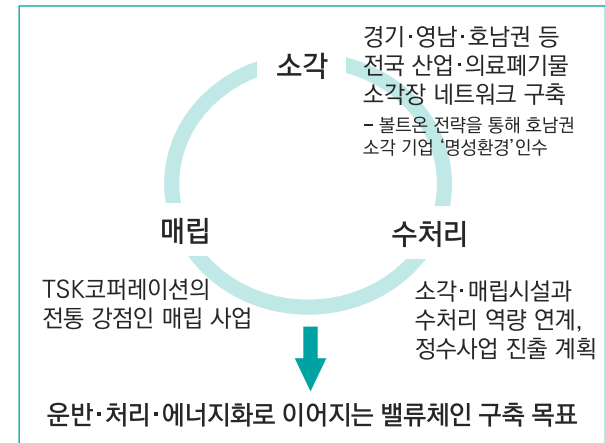
인수시기	인수기업	주요 사업	지역
2020년 12월	환경시설관리	하폐수처리,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 운영, 바이오가스 등 자원에너지화 시설 운영 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2021년 6월	클렌코*	일반·건설폐기물 소각, 지정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 소각	충북 청주
2021년 6월	대원그린에너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소각, 폐열 발전 등	충남 천안
2021년 6월	새한환경	폐기물 소각, 오폐수처리, 정수설비 설계제조, 환경오염방지 등	충남 천안
2021년 6월	디디에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	충남 논산
2021년 7월	도시환경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소각), 수집·운반, 스팀 공급 등	경기 연천
2021년 7월	이메디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	전남 장흥
2021년 7월	그린환경기술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슬러지·하수침전물 재생처리	충남 천안
2022년 2월	TES	E-Waste(전기·전자폐기물) 처리·재활용	싱가포르(본사)



Source: Bloomberg(2022.01.26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SK에코플랜트의 클렌코 인수는 보류 중(2022.03.02 기준)

② 에코비트

합병 대상	주요 사업
TSK코퍼레이션	매립·수처리 전문 - 하수·폐수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등
에코그린홀딩스 (ESG)	의료·산업폐기물 처리 전문 - 폐기물 소각·매립, 발전사업, 폐기물 파쇄사업



Business Contacts

ESG Business Group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gnamkim@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Deal Advisory

김광석
부대표

T: 02-2112-0723

E: kwangseokkim@kr.kpmg.com

이동근
전무

T: 02-2112-7764

E: dlee@kr.kpmg.com

이진연
상무

T: 02-2112-7435

E: jinyeunlee@kr.kpmg.com

홍민성
상무

T: 02-2112-3564

E: minsunghong@kr.kpmg.com

김일훈
상무

T: 02-2112-0268

E: ilhoonkim@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